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9564
----------	-------

제안연월일 : 2019. 4. 4.

제안자 : 교육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9년 3월 26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를 계속해왔다. 우리 정부가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부당성을 지적하며 거듭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교과서 검정을 통해 초등 사회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을 늘리고 내용 또한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의 어두운 과거를 정당화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감행해왔다. 이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은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침략의 역사와 올바른 영토관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

며, 역사를 왜곡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의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학습지도 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즉각 시정하고, 근현대사 기술의 국제이해를 강조한 근린제국조항의 정신에 근거한 올바른 교과서를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하여 양국 간 화해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 및 공동 번영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침략의 역사를 교육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시도에 대하여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범국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안이유

2019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및 교과서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늘리고 내용 또한 악화시켰음.

또한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버리고 있음.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 진정한 화해 및 공동번영의 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함.